

KERI Brief

국내 상장사의 고용 동향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추나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na0108@keri.org)

현 재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일자리상황관 설치, 일자리 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과 고령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이 감소한 상황에서 높은 청년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 일자리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책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10년간(2007~2016년) 코스피·코스닥 비금융 상장기업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 종업원 수가 매년 증가한 가운데 전체 고용 대비 제조·건설업 고용은 비중이 다소 줄고 유통·서비스업은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건설업보다 유통·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실제 10년간 16개 업종 중 15개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했는데, 그중 연평균 고용증가율 상

위 5개 업종은 부동산 및 임대업, 도소매업 등 모두 유통·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유통·서비스업의 고용 증가가 더 두드러지는데, 10년 전(2007)과 비교했을 때 고용증가 상위 10개 기업 중 유통·서비스업 기업은 3개사에 불과했지만 3년 전(2013)과 비교하면 총 6개사로 유통·서비스업 기업이 절반 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렇듯 10년간 유통·서비스업의 고용이 빠르게 늘면서 비중도 커진 것은 제조업보다 유통·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반면 높은 고용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유통·서비스업 비중은 해외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 유통업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유통·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1. 문제 제기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일자리 예산안 마련 등을 통해 일자리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음
- 일자리위원회(2017.5.10.) 외에도 일자리수석실을 신설(5.11)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관련 지표들을 담은 '일자리상황판'을 설치(5.24)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일자리상황판은 ① 일자리 상황(고용률, 실업률 등), ② 일자리 창출(취업유발계수, 취업자증감 등), ③ 일자리 질(임금격차, 임금상승률 등), ④ 경제지표(경제성장률, 투자, 소비 등) 등을 표시
- 일자리정책 로드맵('17.10)을 마련하여 일자리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비하고, 11조 원 추경('17.7), 2017년 세법개정안('17.8), 2018년 예산안('17.12)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 저성장 고착화, 고령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실업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낮아지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10년대 들어 2~3%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해 성장률이 3.9%('00~'15년)에서 1.9%('26~'35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¹⁾
- 2017년 11월의 만 15~29세 청년실업률(9.2%)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청년실업률 중 가장 높고, 3분기 취업자(27만 9,300명)는 '13년 1분기(25만 7,400명) 이래 가장 작은 수준

1) 한국은행,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2017.7

〈표 1〉 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 및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일자리정책 로드맵 (2017.10.18.)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4개 분야에서 10대 중점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10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
2017년 세법개정안 (2017.8.2.)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중대세제 신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 세제지원 확대, 외투기업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정규직 전환 기업 세제지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
2018년 예산안 (2017.12.6.)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부담 지원금을 포함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포함하여 고용부 예산이 30.1% 늘어난 23조 7,580억 원으로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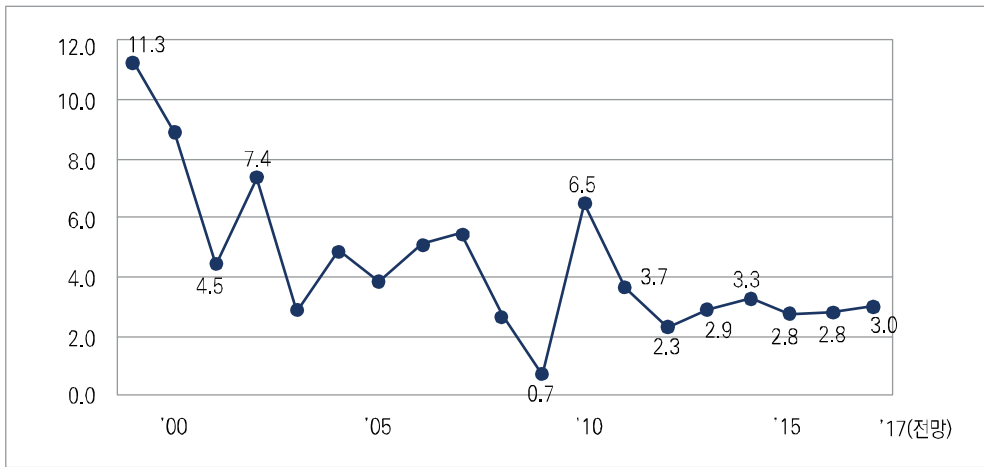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10년간(2007~2016년) 업종별 일자리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책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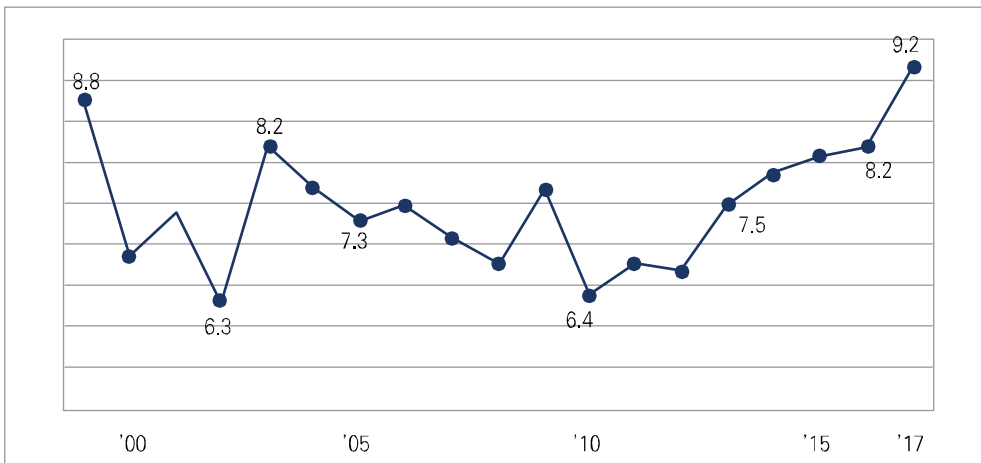
○ 고용 창출 여력이 큰 산업을 파악하고 일자리 수요 변동을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고용 증감 추이와 비중을 분석

〈그림 1〉 경제성장률 및 매해 11월 청년실업률 추이

〈실질 경제성장률(%)〉



〈11월 청년실업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II. 상장사 고용현황 및 특징

□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별 고용인원 및 비중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공시 자료를 사용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구분을 따름

○ 분석대상은 2007~2016년 각 연도의 코스피 및 코스닥 비금융 상장기업

- 1,238개(2007년)에서 1,826개(2016년)로 47.5% 증가

○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대부분류를 기준으로 활용하되, 전체 21개 업종 중 상장사가 없거나 데이터가 없는 업종 4개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16개 업종 대상

- 데이터가 없는 업종 4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표 2〉 2007~2016년 연도별 비금융 상장기업 수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238	1,286	1,353	1,439	1,507	1,540	1,595	1,659	1,751	1,826

주: 종업원 수 데이터 없는 기업 제외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 3〉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및 대표기업

번호	대분류	대표기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	동원산업(주), 사조산업(주), 신라교육(주)
2	광업	(주)보광산업, (주)동원, (주)에스아이리소스
3	제조업	(주)삼성전자, (주)현대자동차, (주)기아자동차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한국전력공사(주), 한국가스공사(주), (주)삼천리
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케이지이티에스(주), 인선이엔티(주), (주)와이엔텍
6	건설업	현대건설(주), (주)대우건설, 지에스건설(주)
7	도매 및 소매업	삼성물산(주), 에스케이네트웍스(주), 롯데쇼핑(주)
8	운수업	현대글로벌비스(주),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9	숙박 및 음식점업	(주)신세계푸드, (주)바른손, (주)디딤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¹⁾	(주)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엘지유플러스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에스케이디앤디(주), 해성산업(주), (주)이스타코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삼성엔지니어링(주), 에스케이(주), (주)두산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²⁾	(주)에스원, 효성아이티엑스(주), (주)씨앤에스자산관리
14	교육서비스	(주)대교, (주)웅진씽크빅, 메가스터디교육(주)
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파라다이스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코웨이(주)

주: 1) 정보서비스업에는 삼성SDS(주), (주)카카오, 네이버(주) 등이 속함

2)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는 (주)하나투어, (주)모두투어 등 여행사 등이 속함

자료: 통계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전체 고용] 최근 10년간 상장기업 고용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 2009년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총 42만 7천여명,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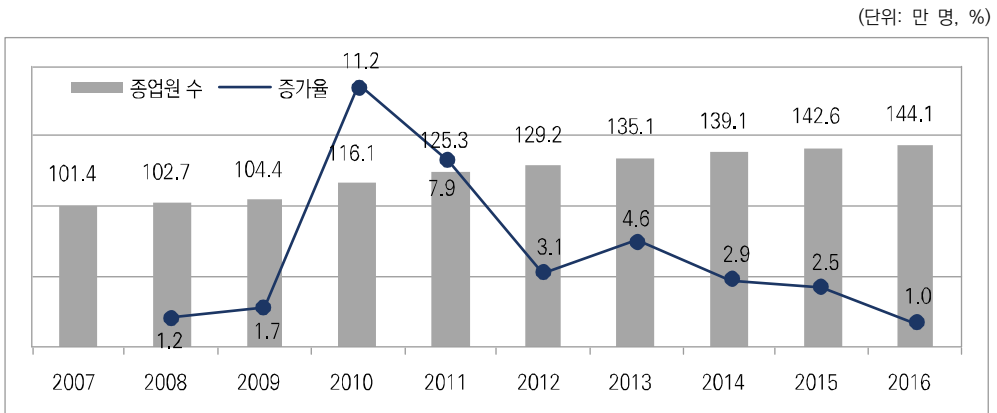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 2009년에 1%대의 낮은 고용증가율을 보이다가 금융위기가 끝나면서 2010년에 고용이 크게 증가(11.2%), 그 이후 고용 증가율이 다시 낮아지는 추세

▣ [산업별 고용] 비금융 산업을 제조·건설업, 유통·서비스업, 농림어업·임업의 3개로 나누었을 때 전체 고용 대비 제조·건설업은 비중 다소 줄고 유통·서비스업은 비중 증가

- 제조업 및 건설업은 고용 인원은 약 27만 3천명이 늘었으나, 고용 비중은 2.3%p 감소
- 유통 및 서비스업²⁾은 고용 인원이 약 15만 3천명이 늘었고, 고용 비중도 2.4%p 증가
- 농림어업 및 임업은 고용 인원 증가가 미미(399명)하고, 고용 비중은 변화 없음

2)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에 서비스업 정의는 별도로 없으나, 여기서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을 제외한 12개 대분류를 '유통 및 서비스업'으로 분류

〈그림 2〉 최근 10년간 상장기업의 종업원 수 변화



자료: TS2000 DB

〈표 4〉 산업별 종업원 수와 고용 비중 추이

(단위: 만 명, %)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제조·건설업 (비중)	73.0 (71.9)	74.5 (72.5)	75.8 (72.6)	82.6 (71.2)	88.2 (70.4)	91.5 (70.8)	95.1 (70.4)	97.7 (70.3)	99.4 (69.7)	100.2 (69.6)
유통·서비스업 (비중)	28.2 (27.8)	27.9 (27.2)	28.4 (27.1)	33.2 (28.6)	36.8 (29.4)	37.4 (29.0)	39.7 (29.4)	41.0 (29.5)	42.9 (30.1)	43.5 (30.2)
농림어업·임업 (비중)	0.3 (0.2)	0.3 (0.2)	0.2 (0.2)	0.3 (0.2)	0.3 (0.2)	0.3 (0.2)	0.3 (0.2)	0.3 (0.2)	0.3 (0.2)	0.3 (0.2)

자료: TS2000 DB

<p>□ [세부산업별 고용] 최근 10년간 대부분의 업종에서 종업원 수가 증가한 가운데 연평균 고용증가율 상위 업종은 모두 유통 및 서비스업에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³⁾만 최근 10년간 고용이 1만 3,330명 감소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산업은 모두 종업원 수가 증가 - 15개 산업 중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여도 상위 3개 업종은 제조업(61.3%), 유통업(18.4%),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2.2%)으로 두 자리 수의 기여도를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 상위 5개 업종은 모두 유통 및 서비스업에 해당, 반면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제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16개 업종 중 중간 순위인 8위 - 고용증가율 상위 업종은 부동산 및 임대업(22.3%), 숙박 및 음식업(17.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4.1%), 도매 및 소매업(12.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3%) 등
	<p>3) (주)신세계가 이마트로 분사(2011.5월)하며 종업원 수가 감소</p>

〈표 5〉 최근 10년간 산업별 종업원 수 변화(증가인원 순)

(단위: 명, %)

순위	산업(대분류 기준)	종업원 수(명)			고용증가 기여도	연평균 증가율
		'07년(A)	'16년(B)	증감(B-A)		
1	제조업	683,393	944,457	261,064	61.3%	3.7%
2	도매 및 소매업	43,567	121,902	78,335	18.4%	12.1%
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1,124	122,917	51,793	12.2%	6.3%
4	건설업	46,160	57,824	11,664	2.7%	2.5%
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9,958	30,363	10,405	2.4%	4.8%
6	운수업	42,875	51,316	8,441	2.0%	2.0%
7	숙박 및 음식점업	1,282	5,258	3,976	0.9%	17.0%
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6,191	29,927	3,736	0.9%	1.5%
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83	8,049	3,366	0.8%	6.2%
10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450	4,771	3,321	0.8%	14.1%
11	교육서비스업	6,365	8,372	2,007	0.5%	3.1%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8	1,029	861	0.2%	22.3%
13	농업, 임업 및 어업	2,415	2,806	391	0.1%	1.7%
14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50	796	146	0.0%	2.3%
15	광업	107	115	8	0.0%	0.8%
1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3,997	50,667	△13,330	△3.1%	△2.6%
합계		1,014,385	1,440,569	426,184	100.0%	4.0%

주: 고용기여도는 각 산업의 고용 변화가 전체 고용 변화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를 나타내며, 여기서는 (2016년 개별업종 고용-2007년 개별업종 고용)/(2016년 전체 고용 합계-2007년 전체 고용 합계)로 계산

자료: TS2000 DB

□ [개별기업 고용] 10년 전('07년) 대비 고용증가 상위 10개 기업 중 유통·서비스업은 3社에 불과하지만 3년 전('13년)과 비교⁴⁾하면 6社로 유통·서비스업 종업원이 최근 더 급격히 증가

○ 최근 10년간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10개 기업 중 유통·서비스 기업은 롯데쇼핑(1위), LG유플러스(6위), 효성ITX(7위) 3개, 나머지 7개는 모두 제조기업(〈표 6〉 참조)

○ 3년 전 대비 종업원 수 증가 10대 기업 중 절반이 넘는 6개 기업(GS리테일(1위), 신세계푸드(3위), 효성ITX(5위), 포스코ICT(7위), LG유플러스(8위), 한국전력공사(10위))이 유통·서비스업(〈표 7〉 참조)

4) 과거와 최근 동향을 비교하기 위해 비교 시점을 10년 전과 3년 전으로 잡음

〈표 6〉 최근 10년간 종업원 수 증가 상위 10개 기업

(단위: 명)

순위	기업명	산업구분	종업원 수(명)		
			'07년(A)	'16년(B)	증감(B-A)
1	롯데쇼핑(주)	유통	8,542	26,357	17,815
2	엘지디스플레이(주)	제조(전자)	15,293	32,118	16,825
3	현대자동차(주)	제조(자동차)	55,629	67,517	11,888
4	삼성전자(주)	제조(전자)	84,721	93,200	8,479
5	엘지전자(주)	제조(전자)	29,496	37,909	8,413
6	(주)엘지유플러스	서비스(통신)	2,167	8,446	6,279
7	효성아이티엑스(주)	서비스(IT서비스)	3,362	8,546	5,184
8	현대제철(주)	제조(철강)	6,078	11,134	5,056
9	현대모비스(주)	제조(자동차)	4,586	9,065	4,479
10	(주)엘지화학	제조(화학)	10,780	14,974	4,194

주: 2007년 비상장사 기업 제외

자료: TS2000 DB

〈표 7〉 최근 3년간 종업원 수 증가 상위 10개 기업

(단위: 명)

순위	기업명	산업구분	종업원 수(명)		
			'13년(A)	'16년(B)	증감(B-A)
1	(주)지에스리테일	유통	4,373	9,480	5,107
2	현대자동차(주)	제조(자동차)	63,099	67,517	4,418
3	(주)신세계푸드	서비스(음식업)	1,673	4,749	3,076
4	(주)엘지화학	제조(화학)	12,617	14,974	2,357
5	효성아이티엑스(주)	서비스(IT서비스)	6,593	8,546	1,953
6	삼호개발(주)	건설	291	2,212	1,921
7	(주)포스코아이씨티	서비스(엔지니어링)	2,487	4,170	1,683
8	(주)엘지유플러스	서비스(통신)	6,780	8,446	1,666
9	(주)한화	제조(화학)	3,898	5,496	1,598
10	한국전력공사(주)	서비스(전기, 가스 등)	20,000	21,560	1,560

주: 2013년 비상장사 제외

자료: TS2000 DB

III.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10년간 비금융 상장사의 전체 고용이 증가한 가운데, 산업별로는 제조업보다 유통·서비스업 고용이 빠르게 늘면서 비중도 증가

○ 유통·서비스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 매출 10억 원 발생 시 고용창출효과가 8.8명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16.7명⁵⁾으로 2배 가까이 더 큼

○ 공장자동화 확산, 해외투자 증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일자리 창출 여건이 악화된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어서 향후 고용에서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음

□ 향후 일자리를 늘리려면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유통업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낮은 유통·서비스업 비중을 높여야 함

○ 의료·관광·교육·금융 분야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

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통과, 유통업 규제 강화 자제를 통해 유통·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첫 발의(2012.7.20.) 후 자동폐기(2016.5.29.)되었다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2016.5.30.) 후 계류 중⁶⁾인데,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함

- 주말 의무 휴업 및 출점 제한 대상 확대 등 유통업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를 자제하고 국내 유통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이를 통해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59.4%)을 세계평균 수준(69.4%)⁷⁾으로 끌어올려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함

5) 매일경제, “청년들 중소기업 안가고...대기업은 해고 어려워 안 뽑고”, 2017.11.15.

6) 2012년 7월에는 정부가 법안 발의, 2016년 5월에는 여야 의원 122명이 공동 발의

7) World Bank,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Census revised national accounts 2015

〈표 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주요 내용

주제	주요 내용
서비스산업발전법	5년 단위 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R&D 지원	서비스산업 R&D 개념의 구체화, 우수 R&D 성과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창업/해외진출 지원	자금·인력·판로 지원 등 창업 활성화, 재정·금융·해외시장 조사 등 해외진출 촉진
인력양성·전문연구센터 지원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지원, 서비스산업 기초조사·연구·정책제언
중점육성산업 선정	부가가치·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우선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표 9〉 국회 계류 중인 유통업 규제 강화 법안

법안명 및 발의 날짜	주요 내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2017.9.29.)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로도 확대 적용, 월 2일 휴업 적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2017.9.26.)	의무휴업일 월 4일로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7.6.7.)	대규모 점포의 소재지 이외 지역에서 출장 세일 등 판매 행사 금지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